

‘부상 털고 연속골’ 조규성, 1년6개월 만에 태극마크 달까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조규성(27·미트윌란)이 10월 A매치를 통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에 나설 명단을 발표한다. 홍명보호는 내달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갖는다.

4일 뒤에는 같은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남미 복병’ 파라과이를 상대한다.

지난 6월 A매치를 통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확정된 한국은 본선 대비에 한창이다.

미국 원정으로 치른 9월 A매치에선 미국을 2-0으로 완파했고, 멕시코와는 2-2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를 달성했다.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 등 기존 자원들의 건재함을 확인한 건 물론, 한국 축구 ‘최초 외국 태생 혼혈 선수’ 엔스 카스트로프(22·퀸즐랜드라트라흐) 등 새 얼굴의 기량도 점검했다.

홍 감독이 이번 10월 A매치에서는 어떤 선수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여러 선수가 발탁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력을 회복한 조규성도 유력한 후보다.

조규성은 한국이 기대하는 공격 자원이었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2-3 패)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전 세계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를 떠나 덴마크 강호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으며 처음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첫 시즌이었던 2023-2024시즌에 37경기 13골4도움을 작성하며 팀의 주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평소 불편하던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꺾였다.



홍명보 감독, 오는 29일 10월 A매치 명단발표 1년3개월 만에 부상서 돌아온 조규성, 맹활약 팀에 합류한다면 공격진 선수층 경쟁력 확보

합병증에 시달려 1년 넘게 재활에 전념하며 2024-2025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자연스럽게 대표팀과도 멀어졌다.

다행히 지난달 17일 2025-2026시즌 덴마크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5라운드 바일레전을 통해 무려 15개월 만의 복귀전을 가졌다.

이후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왔고, 18일 올보르BK와의 2025-2026시즌 덴마크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1년 4개월 만에 골 맛까지 봤다.

21일 비보르와의 리그 9라운드에서도 골을 넣으며 2경기 연속 득점포로 완벽 부활을 알렸다.

오는 25일 슈투름 그라츠(오스트리아)와의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첫 번째 일정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홍 감독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터다.

조규성의 대표팀 복귀는 선수 개인뿐 아니라 한국 축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7월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한 이후, 오세훈(26·마치다 젤비아), 주민규(35·대전하나시티즌), 오현규(24·헝크) 등으로 최전방 자원을 뽑아왔다.

그러나 주민규는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내년 월드컵 본선까지 기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오세훈은 소속팀에서 파괴력을 보이지 못하는 중이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의 이적 직전까지 잘 정도의 실력을 보이는 오현규에게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홍 감독은 지난 9월 A매치를 통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이적 후 9번(최전방 공격수)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측면에서 더 위협적인 손흥민의 포지션을 변경해서 쓰기에 월드컵은 만만 한 무대가 아니다.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경기를 뛰며 월드컵 득점 경험까지 가진 조규성이 북극해 홍명보호 자원들과 발을 맞춘다면, 공격수 선수층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해 3월26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전이 조규성의 마지막 A매치였다. 약 1년6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뉴시스



북구,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12월 개장

스크린 타석 3개·퍼팅 연습홀 4개 등 153.92㎡ 규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북구 서하로194번길 6)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북구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예산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 4층에 스크린 타석 3개와 퍼팅 연습홀 4개를 포함한 153.92㎡ 규모로 조성 중이다.

골프장 내부에는 턱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의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개장 후 약 한 달간 시범운영에 나선 뒤 내년 초부터 공식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 이용료, 예약 방법, 이용 시간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 완공 전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논의

를 통해 결정한다. 북구는 이번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실내에 조성되는 만큼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이용이 가능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초급자 파크골프 레슨, 스크린파크골프 대회 등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들께서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치북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8월 연면적 2,683㎡ 규모로 조성된 세대 통합형 복합공간으로 실내 놀이터, 통합 돌봄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 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윤곽 드러나는 PS 티켓 향방... 가을야구 보이는 삼성·KT

다음 달 열리는 가을야구에 참가하는 팀들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다. 4위 삼성 라이온즈와 5위 KT 위즈는 경쟁팀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며 포스트시즌(PS) 진출이 유력하다.

1위 LG 트윈스와 2위 한화 이글스가 일찌감치 가을야구 초대장을 받은 가운데 SSG 랜더스는 아직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으나 3위 군히기에 돌입하면서 가을야구행을 눈앞에 뒀다. 나머지 포스트시즌 진출권 2장을 두고 삼성과 KT, 롯데 자이언츠, NC 다이노스 등 4개 팀이 경쟁하는 형국이었다. 삼성과 KT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삼성(전날(24일) 대구 롯데전에서 9-4로 승리하며 가을 잔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정규시즌 종료까지 5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6위 NC에 3.5경기 차로 앞서 있다. 삼성은 SSG와 격차를 1.5경기까지 좁히면서 내친김에 3위까지 노려볼 만하다.

삼성이 25일 열리는 대구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승전보를 전하고, SSG가 같

3위 SSG·4위 삼성·5위 KT, 가을야구 진출 유력
6위 NC는 기적 바라야... 5위 KT와 2.5경기 차 추락한 7위 롯데·8위 KIA, 나란히 PS 탈락 위기

은 날 벌어지는 인천 KT전에서 패하면 두 팀의 승차는 0.5경기까지 줄어든다. 정규시즌을 3위와 4위, 5위로 마무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3위 팀은 준플레이오프로 직행하지만, 4위 팀과 5위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어야 한다.

잔여 5경기를 남겨둔 KT는 6위 NC에 2.5경기 차로 앞서 있어 가을야구 진출을 향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3연승을 질주하는 등 팀 분위기도 상승세다.

KT 역시 5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KT가 이날 SSG의 발목을 잡으면 1.5경기 차로 추격하게 된다.

NC는 기적의 시나리오를 써야 가을야구행을 꿈꿀 수 있다. 전날 LG를 10-5로 격파하며 KT와 승차는 조금 좁

한 상황이다. NC는 남은 6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고, 삼성과 KT가 와르르 무너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

7위로 추락한 롯데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

KT에 3경기 차로 뒤처진 롯데는 남은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하고, 경쟁팀들의 패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롯데는 남은 5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8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8위까지 떨어지며 자존심을 구겼다.

KIA는 잔여 6경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패하면 가을야구 탈락이 확정된다. /뉴시스